

음식은 역사가 아니라 문화다

“1931년 양력 설날에 서울 한국동에 사는 안창길은 92세가 되었다. 그녀는 13세에 침방 나인으로 창덕궁에 들어가서 줄곧 궁에서 처녀로 살았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장수를 한 인물이라 동아일보 기자가 안창길을 찾았다. 그녀의 식성이 어떠한가에 이렇게 장수하는지를 묻자, 조카 며느리는 안창길이 식성이 좋아 무엇든지 잘 먹지만, 그중 육회를 비롯한 고기를 특히 좋아한다고 했다... 이러한 육회와 비빔밥이 만나 육회비빔밥이라는 새로운 음식이 탄생했다.”(111쪽)

음식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좀더 확장해보면 음식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역사를 만든다.

과연 그렇까. 이러한 생각에 반문을 하는 이가 있다. 음식인문학자 주영하 한국화학영양연구원 교수는 음식을 역사로 만들고, 역사를 정답으로 여기는 풍토를 우려한다.

그는 “한국음식의 원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대신 “한국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왔는가”에 초점을 뒀다.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를 알면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자의 말대로 사람은 잘났건 못났건 누구나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사회활동도 정치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나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오른 음식을 근거로 음식문화를 조망한다. 음식의 특성상 거시사와 미시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함의는 물론 개개의 음식이 지니고 있는 풍미와 요리법 등도 포함된다.

근대적 의식업인 국밥집, 일본식 고급 요리집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빈자의 떡으로 상징되는 ‘빈대떡’은 식민지 시기 좌판에서 시작된 서민들의 음식이다. 산업화시기에 유행했던 대포집은 가니 겸 안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저자는 한국 음식문화가 크게 변화된 시기를 20세기로 꼽는다. 음식을 먹는 주체가 식객에서 고객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단순히 얻어먹는 행위가 아닌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이다. 세계화를 거치며 새롭게 탄생한 음식점의 주요 메뉴, 일테면 ‘치맥’, ‘버거’ 등도 당대의 현실과 궤를 같이한다.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지음

를 알고 나면 사회의 역사는 저절로 알게 된다는 논리다.

주 교수는 지난 100년간 한국인의 식탁에 오른 음식을 근거로 음식문화를 조망한다. 음식의 특성상 거시사와 미시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함의는 물론 개개의 음식이 지니고 있는 풍미와 요리법 등도 포함된다.

근대적 의식업인 국밥집, 일본식 고급 요리집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빈자의 떡으로 상징되는 ‘빈대떡’은 식민지 시기 좌판에서 시작된 서민들의 음식이다. 산업화시기에 유행했던 대포집은 가니 겸 안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저자는 한국 음식문화가 크게 변화된 시기를 20세기로 꼽는다. 음식을 먹는 주체가 식객에서 고객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단순히 얻어먹는 행위가 아닌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이다. 세계화를 거치며 새롭게 탄생한 음식점의 주요 메뉴, 일테면 ‘치맥’, ‘버거’ 등도 당대의 현실과 궤를 같이한다.

저자는 식사로서의 음식은 일상이지만, 문화와 역사로서의 음식은 인문학이라고 강조한다.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양성 속에 숨겨진 의미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고 차원이 아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왔느냐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음식과 연관된 한국사회의 풍부함을 한두 개의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식이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만을 상징하지는 않는다는 서두의 말과 궤를 같이한다.

“생물학적인 음식에는 물질이 담겨 있지만, 문화적인 음식에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휴머니스트·2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관광,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여행을 팝니다’

엘리자베스 베커 지음



‘거대한 비즈니스’가 된 여행의 이면을 파헤친 책 ‘여행을 팝니다-여행과 관광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 나왔다.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 엘리자베스 베커가 쓴 이 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행과 관광이 한 국가의 문화와 환경의 지형,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낱말이 해부한다.

저자는 5년 동안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현장을 발로 뛰고,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다.

필자는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프랑스·베네치아·캄보디아를 통해 관광이 문화유산으로 가득찬 도시를 어떻게 잠식해 가는지를 들여다보고 소비 관광의 핵심으로 꼽히는 두바이, 자원관광의 보고 잠비아, 코스타리카, 스리랑카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로운 거인 중국과 오래된 거인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명랑한 지성·2만50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단순한 침묵 너머 독특한 울림

‘누가 저 황홀을...’

김원수 지음



1998년 ‘작가세계’로 등단한 김원수 시인이 시집 ‘누가 저 황홀을...’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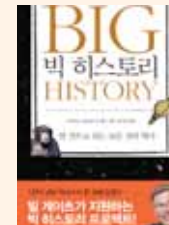
15년 만에 출간한 첫 시집답게 작품마다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가득하다. 시어는 간결하고 이미지는 선명하다. 거주장소로 말들을 버리고 정제된 언어를 형성했다는 방증이다.

시인의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의식은 공허함이다. 우리가 밟고 선 세계가 허공이므로, 여기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 또한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시가 거추장스러운 말의 상찬이나 화려한 이미지를 배제하는 까닭이다. 그 두근거리는 세계로,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곳이 내가 있을 자리이다. 이름까지 못한 나의 말들을 버리고 싶다.” <시인동네·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직지, 길을 가리키다=그동안 ‘직지(直指)’는 번역서 몇 권과 선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전문 강설 교재만이 나와 있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엔 벽이 높았다. 이시우 박사의 ‘직지, 길을 가리키다’는 ‘직지’를 연거분적으로 풀어낸 점이 흥미롭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거분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족사·2만9500원>



▲빅 히스토리=한 권으로 읽는 우주, 지구, 인간의 역사.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현대 사회와 미래까지 다루는 역사책이다. 137억 년이라는 우주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조망한다. 빅뱅, 태양계의 탄생, 지구의 탄생, 인류의 등장, 문명의 탄생, 산업의 발달 등 가장 핵심적이고 굵직한 역사를 큰 그림으로 보여준다.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파악하는 빅 히스토리 입문서이자 길잡이다. <해나무·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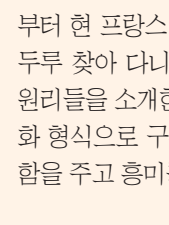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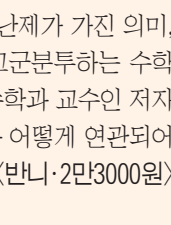
▲근대 엔지니어의 탄생=근대 산업 사회를 형성한 주역이자 자본과 노동의 중재자로서,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을 이끌어낸 혁신가로서 엔지니어를 조망한다. 책에서 다루는 시기는 제1차 산업 혁명기, 즉 18세기 후반에서 1870년대 후반은 1880년대까지다. 특히 이 시기의 토목공학과 기계공학에서 근대 엔지니어가 탄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에코리브르·1만7000원>



▲선과 함께한 열한 번의 건축 수업=친절하고 재미있는 강의식 박 건축 이야기. 현대 건축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부터 현 프랑스 건축의 대표 주자 장 누벨까지 파리의 주요 건축을 두루 찾아 다니며 건축담론의 방향을 바꾼 독창적인 현대 건축의 원리들을 소개한다. 신비로운 노(老) 건축가와 어린 건축학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정감 있는 글과 예쁜 삽화가 독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흥미를 북돋는다. <컬처그라피·1만3800원>

▲위대한 수학문제들=수학사를 뒤늦은 14가지 수학 난제에 대해 풀어냈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설명하면서도 난제가 가진 의미, 난제의 해결이 가져올 미래, 난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학자들의 에피소드까지 다뤘다. 영국 워릭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저자인 스티븐 핑커는 수학난제들이 실제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번디·2만3000원>

▲공학이란 무엇인가=카이스트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공학의 현재와 미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나아가서는 일반인에게 공학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생겼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기계·토목·전기전자 공학 등 비교적 오래된 학문 분야뿐 아니라, 원자력·해양시스템·항공우주 등 14가지 다양한 공학 분야가 소개돼 있다. <살림 프렌즈·1만5000원>



▲내 친구 스마트폰=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지후의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밤늦게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 하다면 하자. 과연 주인공 지후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아이들의 나쁜 습관을 생각하며 고칠 수 있도록 미술치료사가 직접 쓴 그림책이다. <꿈터·1만2000원>

▲우리 엄마가 최고야=여러가지 동물들을 등장시켜 엄마의 역할과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 엄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기린, 코끼리, 고래, 하마, 캥거루 엄마와 아기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엄마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준다. <애플트리 태일즈·9000원>



▲까만 토끼=까만 토끼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내달리는 양증맞은 토끼와 그 토끼를 따라가는 까만 토끼의 긴장감 넘치는 그림책. 자신의 그림자를 커다랗고 무서운 또 다른 토끼라

승리나 패배는 없다... 오직 변화만 있을 뿐

‘아크라문서’

파올로 코엘료 지음



세기 말 공장에 모인 예루살렘 군중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중들은 현자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

“SNS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거대한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존재가 쓸모없다고 여기며 꿈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두려움, 불안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파올로 코엘료가 신작 ‘아크라문서’를 펴냈다. ‘순례자’ ‘연금술사’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등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168개국 78개 언어로 번역돼 1억4000만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크라문서’ 역시 37개국에 번역 출간돼 베스트셀러 상위에 진입했다.

이번 소설의 구성 역시 이채롭다. 서사의 시작은 11

질문은 전쟁에서부터 고독, 사랑,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현자의 답변은 곧 코엘료의 인생 역정을 통해 얻은 깊은 성찰에 따른다.

“자연의 대순환 속에는 승리나 패배 같은 개념이 없다. 오직 변화가 있을 뿐이다. (중략) 이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지며, 역경의 시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영광의 순간에 도취되어 그 순간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된다.” <문학동네·1만1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실감에 빠진 남자, 그의 삶은 빛바랜 도자기

‘도자기 박물관’

윤대녕 지음



어간 어묵 공장에서 한 여자를 만난다. 한곳에 정착하려나 싶은데 이번에는 도자기에 힘이 쏠린다. “우중충한 어묵 공장에 처박혀 있느니 행상을 하며 떠도는 게 낫겠다”는 아내의 말에 공장을 그만두고 방물장수가 된다.

윤대녕 작가의 일곱 번째 소설집 ‘도자기 박물관’이 나왔다. 3년여 만에 나온 이번 작품집에는 고통에 대한 사유와 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다. 작가는 지금까지 특유의 여로 형식과 시적인 문장으로 인간의 의미를 집요하게 탐색해왔다.

윤대녕이 그려온 인간들은 저마다 남모른 사연을 안고 방황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태생적인 결핍과 상실감으로 수렁에 빠지거나 또다른 출구를 찾아 떠도는 이들이다. 이전의 소설과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찾아온 포티투스 수컷을 유인해 계절스럽게 먹어 치운다...”

표제작 ‘도자기 박물관’은 상실감에 빠진 어느 남자의 이야기다. 주인공 남자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그러나 어느 날 보게 된 도자기에 대해 없이 빠져들면서 삶이 바뀌게 된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아내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만다. 남자에게 삶은 빛바랜 도자기와 같다. 뜨거운 불가마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윤대녕은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뛰어난 감각을 지닌 작가다. 이번 소설에서도 그의 감성은 여전히 섬세하다. 오십대에 접어든 작가의 치밀하면서도 내밀한 문장을 읽는 맛이 쏠쏠하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흥미진진한 존재 ‘곤충’ 인간과 공생하다

‘육망의 곤충학’

길버트 웰드바우어 지음



고,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선사한다.

곤충은 여러 인간 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아주 흥미진진한 존재들이다. 이런 곤충 중에는 잘 알려진 곤충도 있지만 우리 물질문명에 기여한 곤충은 대부분 거의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딧불이는 빛으로 암수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다. 반딧불이 수컷은 모스부호와 비슷한 짧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는 좀더나 모두 다르다. 암컷 중에는 다른 종의 수컷을 유인해 잡아먹는 포식자도 있다.

‘반딧불이 광파탈’ 포티투스 수컷이 암컷을 다른 종인 포티투스 수컷의 신호를 흉내 내 이를 듣고 찾아온 포티투스 수컷을 유인해 계절스럽게 먹어 치운다...”

일리노이 대학교 길버트 웰드바우어 곤충학과 석좌교수가 쓴 곤충 인문 에세이 ‘육망의 곤충학’이 출간됐다. 책은 인간 문명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곤충에 대해 문화, 산업, 역사, 예술, 문학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저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나비, 반딧불이, 잠자리, 무당벌레 등의 곤충을 살펴보고, ‘마치못해 인정하거나 감탄하는’ 개미, 비룩, 에벌레 등도 살펴본다.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 곤충의 진짜 이야기와 곤충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신화보다 훨씬 재미있고 경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한울림·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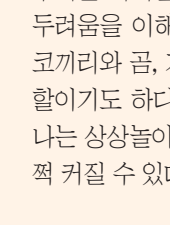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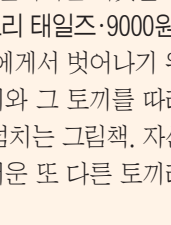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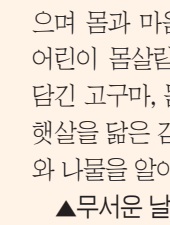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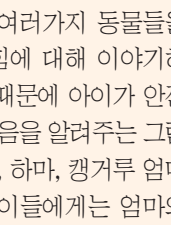
고 생각한 토끼의 고군분투 이야기와 토끼의 조마조마한 심리를 따라 진행된다. 아이들은 작은 토끼가 되어보기도 하고, 무섭고 커다란 그림자가 되어보는 역할 놀이를 통해 나와 그림자의 존재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다.

▲자연을 먹어! 가을=자연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서로 나눠 먹



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 주는 어린이 몸살림 교과서. 흙의 단맛이 고스란히 담긴 고구마, 몸의 독소를 빼주는 도토리, 가을 햇살을 담은 감 등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나물을 알아본다. <내인생의책·1만2000원>

▲무서운 날의 그림책=혼자 집에 있는 것이 무서운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그림책. 연희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놀아주는 동물 친구 코끼리와 곰, 거북이가 한 역할을 부모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책에서처럼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상상놀이를 해 주면, 아이의 상상력은 훌쩍 커질 수 있다. <한림출판사·1만1000원>



▲까만 토끼=까만 토끼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내달리는 양증맞은 토끼와 그 토끼를 따라가는 까만 토끼의 긴장감 넘치는 그림책. 자신의 그림자를 커다랗고 무서운 또 다른 토끼라